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

최정아 · 이승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2. 연구방법
 - 2.1. 사례연구
 - 2.2. 연구참여자
 - 2.3. 연구방법 및 절차
 - 2.4. 자료분석
3. 연구결과
 - 3.1. 김벌리의 이야기
 - 3.2. 라일라의 이야기
 - 3.3. 엘리의 이야기
4.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 모습을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3명으로, 연구 방법으로는 심층면담 및 집단면담을 통해 이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사례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에서 사회문화적 차원, 경제적

* 본 논문은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차원,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이 모두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실천은 필리핀 친정 가족들과 전화로 연락하고 필리핀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차원의 실천은 친정 가족이나 지인에게 필요한 소액을 송금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차원의 실천은 필리핀 선거에 관심을 가지며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에서 초국가주의를 실천을 지지하되, 필리핀과 한국의 양방향적 초국가주의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에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실천, 사례연구방법

1. 서론

1980년대 남녀성비 차이로 인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결혼이민여성들의 유입은 특정 종교의 합동 결혼 및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중개업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김수진, 2018: 96; 박은애, 2007: 6). 한국에 정착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급증하자 국가에서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착에 초점을 둔 정책 및 행정 연구에 집중해왔다(이현지, 김민수, 2014: 35).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한국 사회에 흡수되려고 하기보다는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배워 나가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김혜선, 2014: 19; Levitt & Jaworsky, 2007: 140-141). 즉,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감과 동시에 모국의 가족이나 모국 출신 이민자들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유대를 하며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김정선, 2009: 199; 단효홍, 2018: 115). 이민자들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 Wimmer와 Schiller(2002: 231-233)는 국가 간 경계를 명확히 했던 방법론적 민족주의의 반대 의미인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¹⁾’라고 하였다.

1) 초국가주의는 이주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모국과 이주국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

이주국에 살고 있지만, 모국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들은 초국가주의 실천을 한다(이윤경, 2013: 48; Landolt, 2001: 220). 초국가주의 실천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²⁾에서 나타난다(Portes, Guarnizo, & Landolt, 1999: 221-222). 이때 이민자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실천으로, 기업이나 국가의 주도하에 규모 있게 실천이 나타나는 것을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실천으로 구분하기도 한다(Landolt, 2001: 229).

그동안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한국 사회에 편입이 되고 동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한건수, 2006: 196-197). 그러나 외국의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용광로 이론이나 다문화 샐러드 볼 이론과 같이 한 방향으로 이주국에 동화되는 과정보다는 모국과 이주국 간의 양방향적 교류를 유지하며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evitt & Schiller, 2004: 1011; Schiller et al., 1995: 53). 결혼이민여성들은 출신국에 따라 이주국에 적응하는 과정이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윤형숙, 2005: 302-303),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에 초점을 두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오는 상황에 대해 김동엽(2010: 55)은 필리핀의 심각한 경제적 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으로 해외 이민을 권장받는다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오는 것은 단지 빈곤 탈출 때문만은 아니다. 다수의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을 선택

하면서 양국을 연결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뜻한다(Basch, Schiller, & Blanc, 1993: 9; Wimmer & Schiller, 2002: 227).

2)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실천은 가족 또는 지인과의 네트워크에서 정체성을 갖거나 TV, 스포츠, 음악 등의 양국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며, 경제적 차원의 실천은 모국의 가족 또는 지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Landolt, 2001: 224-229; Portes et al., 1999: 221-222). 정치적 차원의 실천은 양 국가의 선거나 정당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이민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이주국에서 이민자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Landolt, 2001: 222-224; Portes et al., 1999: 221-222).

하는 데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며, 동시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³⁾ 게다가 국제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 중 일부는 자녀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로 인해 필리핀 여성들과의 만남을 선호하기도 한다(이수자, 2004: 208).

그러나 막상 한국에 정착한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이나 몽골,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에 비해 외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김동엽, 2010: 32). 타국에서의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은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갖고 서로 돕고 연계하며 적응 전략을 구사한다(김정선, 2009: 35; 임안나, 2005: 75). 이들은 필리핀 공동체 네트워크에 적극적이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김동엽, 2010: 46-47). 또한 가족과 친족 등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필리핀 여성일수록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려고 한다(김정선, 2009: 171-173).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 후 적응(윤형숙, 2005)이나, 사회적 차별 또는 갈등(조선주 · 안주희, 2020)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간헐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귀속이 되어 가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연구(김정선, 2009)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 실천을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김동엽(2010)의 연구 외에는 드물다. 게다가 김동엽(2010)의 연구도 국제사회와 시장경제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렵다.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이론 중심적인 Portes 등

3) 필리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부국이자 문화강국인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윤형숙, 2005: 304).

(1999)의 사회학적 관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민자들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맥락을 통한 초국가주의 행동을 초점을 둔 Schiller 등(1995)의 문화인류학적인 관점도 고려하여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며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차원에서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 세 명의 이야기를 듣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초국가주의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정책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사례연구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이 초국가주의를 실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⁴⁾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초국가주의를 왜 실천하게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 변화,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사례연구가 적절하다. 또한 사례연구 방법 중 다중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에 비해 연구결과의 정확성이나 타당성 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Merriam, 2005: 1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4) 사례연구는 제한된 맥락 안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Merriam, 2005: 44-45)으로, 동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어떻게 또는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을 때 주로 선택한다(Yin, 2021: 38).

결혼이민여성들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에 대한 세 개의 사례를 분석하는 다중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⁵⁾

2.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을 대표할 수 있는 세 명의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을 목적 표집을 통해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인 초국가주의 실천 중 하나로 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네트워크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P도시의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다문화 공동체 한 곳을 소개받아 결혼이민자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이름 ^{a)}	결혼년도	학력	직업
김별리	2015년	학사(호텔경영 전공)	가정주부
라일라	2014년	고졸	쇼핑몰 근무
엘리	2011년	전문학사(컴퓨터 전공)	가정주부(바리스타 경력)

a) 연구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가명으로 기입되었음

2.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초국가주의에 관한 세 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방법 및 기간을 고지하고, 동시에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를 위한 장치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결

5) 본 연구는 다중 사례연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의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Yin, 2003: 57-58). 본 연구에서는 당면한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단순 반복 사례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2~3개 정도 사례를 보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Yin, 2021: 109-110).

혼이민여성들의 초국가주의 실천에 대한 의미를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마다 총 4회씩,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진행하였다. 첫 번째 면담을 시작한 이후 3주 이내에 종료하였으며, 각 면담은 회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은 용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기에는 영어를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나, 모두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여 점차 한국어로만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심층면담에서 수집된 자료 중 의미 있는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해 1회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자료수집, 분류, 재구조화, 해석, 결론 내리기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다중 사례연구를 위해 사례별 자료분석이 추가로 진행되었다(Merriam, 2005: 266-268). 재구조화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이 이민자로서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 전체에서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종합한 뒤 삼인칭 시점의 이야기로 변환하여 서술하였다(Seidman, 2022: 230-233). 특히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대화 내용을 사건과 맥락에 따라 연결 및 재구성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사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삼각화, 다문화 및 질적연구 전문가인 외부 감사자 2인을 통한 검증 및 연구자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확인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삶에서 나타난 초국가주의 실천 모습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3명의 사례를 각각 제시하였다.

3.1. 김벌리의 이야기

김벌리는 한국어가 유창하고 활발한 30대 중반의 필리핀 결혼이민자 여성이다. 가난한 형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셋째 언니와 함께 필리핀의 한국식당에서 일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김벌리는 남편의 지원을 받아 4년제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공부하였고, 대학을 마친 뒤에는 호텔에서 잠시 일하다가 교육공무원이 되어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다. 그 후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필리핀에서 첫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남편이 영구귀국하게 되면서 4년 전 함께 한국으로 이민했다.

한국에 올 당시 김벌리는 한류 드라마로 인해 한국의 시어머니는 모두 나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만난 시어머니는 김벌리에게 잘해 주었다. 한국에 왔을 때 김벌리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출산 때까지 시댁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합가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처음 해보는 시댁 생활로 인해 김벌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또한 필리핀의 더운 날씨로 인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생활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갑갑했다. 시부모는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막상 김벌리가 둘째를 낳을 때는 필리핀 친정어머니를 한국으로 불러 도움을 받았다. 결국 시댁에 산 지 9개월 만에 남편과 상의하여 분가를 결정했고, 남편 회사 사택으로 이사했다. 사택인 아파트에는 남편의 동생 부부도 살고 있었다. 김벌리는 동서와 금방 친해져서 동서의 도움으로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필리핀 결혼이민자 친구들을 사귀기 뒤에는 자주 만나면서 그들과 어려움을 공감하거나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나라 출신 다문화 가족들과도 교류하고, 이들과도 친해져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김벌리는 한국에 온 뒤 필리핀 친정 가족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데, 주로

필리핀 소식과 일상에 관해 대화한다. SNS로 매일 필리핀 뉴스를 확인하고 필리핀 음악도 많이 듣는 편이다. 대학 친구들과도 SNS 그룹 채팅으로 계속 소통하며 지낸다.

김벌리는 한국에 온 뒤 직업을 갖지 않아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 필리핀에서 살 때는 친정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매달 드렸으나 현재는 친정 가족들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자신이 모아 놓은 용돈을 조금씩 송금한다. 이 돈 역시 자신이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남편이 필리핀으로 보내라고 할 때 송금하는 편이다. 그 대신 한국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서 모았던 돈은 모두 친정어머니에게 드리고 왔다. 김벌리가 이전에 사 놓은 집들도 가족을 위해 제공했는데, 집 한 채는 친정 언니 가족에게 빌려주었고, 또 다른 한 채는 삼촌이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빌려주는 대신 친정어머니가 삼촌으로부터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집을 미용실로 만들 때, 훗날 2층으로 증축해서 스파숍도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필리핀에 귀국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 계획은 없다.

김벌리는 필리핀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좋은 정치인은 당선되지 않고, 비리 있는 사람만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필리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할 때 비리가 있는 서류들을 보면서 필리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 좋은 대통령을 뽑고 싶지만, 정치인들이 모두 문제가 많아 보였다. 한국에서 김벌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며 필리핀 가족과 이민자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곳에서 한국인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친구들의 쉼터를 찾아주거나, 필리핀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힘든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국가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한다. 지금도 옆에서 많이 들어주고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며 가능하면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김벌리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삶에서의 초국가주의 실천 모습을 사회문화적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벌리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친정 가족 및 친구들과의 일상 공유와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른 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상을 공유하였다. 또한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류 드라마를 통해 한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문화를 계속 접하며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둘째, 김벌리의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친정 가족들에게 급한 돈을 송금해주는 것과 이전에 준비해놓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친정 가족이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송금하였고, 자신이 필리핀에 마련해 두고 온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친정어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해놓는 방법을 통해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셋째, 김벌리의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필리핀의 정치적 부패 문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들, 특히 인권 문제는 자신들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고 지원해주면서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3.2. 라일라의 이야기

라일라는 조용한 성격의 31살의 필리핀 결혼이민자 여성이다. 어릴 때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자란 라일라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돈을 벌었다. 20대 때 우연히 보게 된 한류 드라마에 매료되면서 결혼이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 친척과 지인들도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하여 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용했던 에이전시에 직접 찾아가 남편을 소개받았다. 비록 남편과는 20살 차이가 났지만 서로 잘 통해 3개월간 연락하다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라일라는 시부모와 합가해 살았다. 남편은 섬에 들어가 배에서 먹고 자며 배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해서 함께 있을 수 없었다.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 한 달에 두세 번만 집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라일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그러나 라일라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시부모도 영어를 하지 못하여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관을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해도 계속 한국어가 늘지 않았지만, 쇼핑몰에서 포장 일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늘게 되었다. 라일라는 한국과 필리핀의 식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종종 경험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 필리핀의 주식인 빵 대신 벽돌 맛이 나는 두부를 먹거나 매일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식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라일라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온 뒤 자녀를 낳기 전까지 총 3번 필리핀을 방문했지만 자녀를 낳은 후에는 육아 등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평소 핸드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로 필리핀 뉴스를 자주 찾아보며 필리핀 가족들의 상황에 관심을 둔다. 한국 드라마도 여전히 좋아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필리핀 드라마도 많이 보는 편이다. 시간이 날 때는 필리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친정어머니와 자주 전화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친정어머니와 오빠와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는데, 주로 친정어머니의 생활비나 수술비, 혈압약 등 가족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그 외에도 라일라는 필리핀 동창들과도 종종 단체 문자로 대화를 나눈다. 라일라는 필리핀에서 가난하게 살았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서 여유있게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어려움을 겪는 동창들을 도와주기도 한다. 특히 오빠나 친척들, 친구들로부터 급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메신저로 연락을 받게 되면, 여건이 되는 경우 5만원 정도 내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평상시에는 자신이 버는 돈에서 매달 20만원을 필리핀 친정어머니에게 송금한다. 그 돈이면 친정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 약값을 모두 지불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은 친정어머니의 수술비로 700만원이 필요했다. 라일라가 열심히 모아 놓은 돈을 모두 보내도 부족한 비용이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거리낌 없이 모자란 돈을 보태주었고, 결국 친정어머니 수술에 필요한 돈을 모두 송금할 수 있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남편이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남편의 일이 조금 힘들어지면 자신의 월급을 생활비에 더 많이 보태기도 한다. 라일라는 필리핀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으며 남편과 한국에서 잘 사는 것이다.

라일라는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라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투표할 생각은 없다. 대신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전화나 문자로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물어보고 조언해주며 필리핀 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다. 라일라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모임의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처음 한국에 와서 복지관과 다문화센터에서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을 만나게 되어, 그중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족처럼 서로를 도와주기도 한다. 남편이 안 오는 주말에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을 집으로 불러 같이 필리핀 음식을 해 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한국에서의 삶의 고충을 나눈다.

라일라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삶에서의 초국가주의 실천 모습을 사회문화적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일라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필리핀 뉴스나 드라마를 보고 이와 관련하여 친정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필리핀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라일라는 결혼이민 전부터 한류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한국문화를 간접 경험해 왔었으며, 결혼이민 후에도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필리핀과 한국의 드라마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양방향적인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둘째, 라일라의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필리핀 친정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송금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루어졌다. 라일라는 친정어머니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보냄으로써 필리핀 친정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하였고, 종종 친척들과 동네 친구들에게도 급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월급 대부분은 한국 가족의 생활비와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에 있어서 양국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라일라의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가족들에게 선거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필리핀 결혼이민자 공동체 네트워크의 모임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졌다. 라일라는 선거철이 되면 조언을 통해 가족들의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의 필리핀 결혼이민자 공동체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모임의 장소로 삼는 등 필리핀과 한국 양국의 상황에 따른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3.3. 엘리의 이야기

엘리는 필리핀 세부섬에서 열두 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나 풍족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했다. 세부대학의 IT 관련 전공으로 준학사 학위를 받은 후 중소기업에서 사장 비서로 근무하던 엘리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간 넷째 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가 언니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을 통해 남편을 소개받았다.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간 엘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남편과 일주일간 데이트 후 결혼을 약속하였고, 일 년 뒤 세부에서 결혼식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3개월이 되었을 때 체류비자가 만료되면서, 유산 수술 뒤 몸조리 하던 엘리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자 비자를 기다려야 했다. 비자는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미루어졌고, 남편 역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필리핀에 있는 엘리를 계속 돕기 어려웠기 때문에, 엘리는 예전에 다니던 필리핀 회사에 다시 들어가 생활비를 벌다 만 2년이 지나서야 배우자 비자를 받고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었다.

남편은 전국으로 회사의 물류를 운송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엘리는 주로 시누이의 도움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 적응했다. 시부모가 안 계셔서 시누이가 대신 시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시누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했고, 종종 남편과도 용돈이나 음식으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엘리는 다문화센터, 사회복지관, 여성센터, 비영리 이주민센터 등 무료로 교육해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어, 한국 문화, 컴퓨터, 바리스타, 영어지도사과정 등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과 친분을 맺기 시작했다. 이들과의 만남은 자녀양육에 대해 서로 조언해주거나 작아진 옷을 물려주고 받으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다문화센터의 맞춤형 지원 역시 엘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출산으로 센터에 갈 수 없을 때는 집으로 선생님이 찾아와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었는데, 선생님은 공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의복 등 물품을 지원해주기도 했고,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는 상담을 해주었으며, 다른 필리핀 결혼이민자들과도 연결해주었다. 게다가 엘리는 다문화센터의 지원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후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일할 기회도 얻게 되어 남편이 주는 용돈에서 벗어나 6개월간 스스로 돈을 벌어보기도 했다.

엘리는 하루의 일과가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자주 SNS로 필리핀 친정 가족들과 통화를 한다. 몇 년 전부터 필리핀 가정에도 무선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무료 전화 통화 기능이 생기면서 단체 화상전화를

통해 친정 가족들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상의하는 편이다. 이러한 빈번한 연락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으면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건 아닌지 걱정할 정도로 일상이 되었다. 필리핀 친정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면서부터 가족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벌어서 보태주기도 하고, 부모의 약값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에서 5만원 정도 떼어서 송금하기도 한다. 엘리는 결혼이민 이후 바리스타 일 이외 대부분은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보낼 돈이 거의 없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필리핀 경제가 악화되면서 친정 가족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친정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급한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주기 위해 남편에게 받는 용돈과 자신이 간헐적으로 버는 월급으로 필리핀 가족을 조금씩 챙기고 한국의 가족들에게도 먹고 싶은 것을 해주거나 옷을 사주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엘리는 필리핀의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최근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친정 가족들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선거 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치인이 누군지 가족에게 조언하면서 더 나은 정치인들이 당선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엘리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모임에서도 친한 언니들이나 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정착을 위한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 필리핀 관련 다문화센터 행사가 있으면 함께 참여하는 등 모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엘리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삶에서의 초국가주의 실천에 대해 사회문화적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엘리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가족들과의 빈번한 연락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엘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일상의 공유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필리핀 친정 가족들의 무탈을 확인함으로써 긴밀한 유대를 지속하는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둘째, 엘리의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자신이 직접 돈을 벌거나 용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필리핀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직접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한국에 정착한 후에는 필리핀 친정 가족들의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적은 돈을 쪼개 송금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다만 한국 가족을 위한 소비에 우선적으로 돈을 사용함으로써 필리핀과 한국 가족 사이의 균형 있는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이어가 고자 하였다.

셋째, 엘리의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은 친정 가족들을 통해 필리핀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공동체 네트워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엘리는 필리핀의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공약을 비교하며 모국의 투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인들과 필리핀 결혼이민자 공동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에 힘을 보탬으로써 필리핀과 한국 모두에서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 하고자 하였다.

4.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사례에서 초국가주의 실천을 살펴 본 결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실천이 모두 나타났다. 이들의 초 국가주의 실천 모습을 사례별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경 제적, 정치적 초국가주의 실천에서 각각 어떠한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지 분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의 접촉과 미디어를 통해 사회문화적 차 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방법과 그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연구참 여자들은 연락을 통해 일상을 친정 가족과 공유하면서 사회문화적 차원 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들은 친정 가족들과 매일 습관처럼 연락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규칙적이면서 빈번한 연락을 통 해 국경을 넘는 가족 네트워크로써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Levitt & Jaworsky, 2007: 137-138)를 실천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전화카 드를 구입하여 충전된 금액만큼만 통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

인 부담이 있었고 짧은 통화 뒤에 그리움이 더 커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 간에 전화로 연락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SNS로 소식을 전하기 쉬워졌을뿐더러 비용부담도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첨단화된 통신 기술을 통해 친정 가족과 연락하고 유대감을 나눔으로써 더욱 끈끈한 가족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 네트워크는 친정 부모들의 일과 노후를 위한 위기를 극복하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단효홍, 2018: 129). Miralao(1997: 196-197)가 필리핀 가족들이 느끼는 가족의 가치란 대부분 대가족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가족 중심적이자 호혜적인 것이라고 한 것처럼, 연구참여자들의 필리핀 친정 가족과의 일상적 연락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가족으로서 강한 유대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필리핀 뉴스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를 접함으로써 한국에서 필리핀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뉴스를 확인하거나 음악 등을 감상함으로써 마치 필리핀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초국가주의 실천은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한류 드라마를 통해 시작되었던 것으로, 한국에 오기 전부터 초국가주의 실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연구참여자들이 접하는 필리핀 뉴스와 드라마, 음악은 친정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되거나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 모임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송금이나 투자를 통해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방법과 그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필리핀 친정 부모에게 필요한 생활비나 가족의 병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친정 가족의 경제적 돌봄을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원비가 높은 필리핀에서 친정 가족들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 즉 정서적인 이유를 가지고 생활비나 병원비를 보냄으로써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김혜선(2014)이 결혼이민자들은 금전적 도구로서 단순히 경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을 통해 가족과 연결되고 싶은 감정적 유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해석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Levitt과 Jaworsky(2007: 134-135)의 연구에서처럼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에게 송금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번 돈을 모두 모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아니었다. 꼭 필요한 돈은 필리핀에 보냈지만, 나머지는 한국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녀를 위해 저축함으로써 필리핀과 한국에 균형적인 양방향적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거나 집을 빌려주는 행위를 통해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필리핀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나라가 자주 봉쇄되면서 갑자기 실직하거나 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된 주변의 친척들이나 친구들로부터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종종 받았다. 이럴 때 필요한 급한 돈은 빌려주기 부담스러운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기꺼이 빌려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돌봄을 책임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친척이나 친구들의 경제적 위기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Kivisto와 Faist(2010: 141)가 언급한 정서적 결속에 기반한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훗날 부모가 아플 때 자신을 대신하여 돌봐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좋은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확장된 호혜성을 갖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및 모임을 통한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이들이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방법과 그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필리핀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권자인 가족들과의 연락을 통해 가족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주는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부패한 필리핀 정치를 개혁할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필리핀 친정 가족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거나 조언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과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고 유대하는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모임에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찾고자 하였다. 해외 이민을 권장하는 필리핀의 국가적 특성상,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은 이민국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와주기 위해 빈번하게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Agbayani-Siewert, 1994: 430-431), 이러한 모임에서 필리핀어를 사용하며 서로에게 동기부여 등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성호, 2019: 75). 이들은 모임을 통해 공동체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얻는 것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함께 적응해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사례 간 차이점도 나타났다. 사회문화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에서 친정 방문은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유로운 경우에만 나타났으며, 경제적 차원의 초국가주의 실천에서 송금하기는 이들의 직업 유무나 친정 부모의 건강 상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지원 여부, 한국에서의 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나 빈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투자하기도 한국에 오기 전에 집을 사두었던 경우에만 나타났다.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는 필리핀 정치에 대한 관심, 한국에서의 주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 등의 차이에 따라 실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이 삶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데는 경제적 상황, 개인적 관심사 및 주변 가족들의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초국가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은 삶에서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초국가주의를 실천하고 있었으며, 평소 필리핀 친정 가족들과의 가족 네트워크 및 다른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과의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즉, 이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국가주의 실천은 한국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다만 초국가주의 실천은 단순히 모국을 향한 실천만이 아닌 모국과 이주국 양국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의 가족 및 사회와도 초국가주의 실천을 하는 균형적이고 양방향적인 초국가주의 실천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세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국가주의 실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다양화하여 다른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가족 및 공동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초국가주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 예를 들어 교통이 불편하거나, 소수만 거주하여 서로 만날 기회가 적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초국가주의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초국가주의 실천 경향을 파악하여 이를 지지해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엽(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연구> 20(2), 31쪽-72쪽.
- 김성호(2019). 상호문화주의에 근거한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참여 경험 연구: 사회적경제공동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52호, 57쪽-84쪽.
- 김수진(2018). 한국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3(1), 95쪽-120쪽.
- 김정선(2009).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귀속의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선(2014). <글로벌 이주와 초국가적 가족유대>. 이담Books.
- 단효홍(2018). 초국가적 가족유대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행위주체성: 한국내 중국 한족 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박은애(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형숙(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쪽-339쪽.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쪽-219쪽.
- 이윤경(2014). 재중한인의 초국가주의: 왕징 코리아타운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현지 · 김민수(2014). 여성결혼이민자에 관한 사회복지연구 동향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5, 27쪽-45쪽.
- 임안나(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선주 · 안주희(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5(2), 69쪽-103쪽.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쪽-243쪽.
- Agbayani-Siewert, P.(1994). Filipino American culture and family: Guidelines for practitioners. *Families in Society*, 75(7): 429-439.
- Basch, L., Schiller, N. G., & Blanc, C. S.(1993).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Routledge.
- Kivisto, P., & Faist, T.(2010) *Beyond a borde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ontemporary immigration*. Pine Forge Press.
- Landolt, P.(2001). Salvadoran economic transnationalism: Embedded strategies for household maintenance, immigrant incorporation, and entrepreneurial expansion. *Global Networks*, 1, 217-242.
- Levitt, P., & Jaworsky, B.(2007). Transnational migration studies: Past developments and future trend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129-156.
- Levitt, P., & Schiller, N.(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Merriam, S. B.(2005). <정성연구방법론과 사례연구>. (강운수, 고상숙, 권오남, 류희찬, 박만구, 방정숙, 이증권, 정인철, 황우형 공역). 교우사. (원전 1998 출판)
- Miralao, V. A.(1997). The family, traditional values and the sodocultural

- transformation of philippine society. *Philippine Sociological Review*, 45 (1-4), 189-215.
- Portes, A., Guarnizo, L., & Landolt, P.(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2), 217-237.
- Schiller, N., Basch, L., & Blanc, C.(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48-63.
- Seidman, I.(202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면담>. (5판, 박혜준, 이승연 공역). 학지사. (원전 2019 출판)
- Wimmer, A., & Schiller, N.(2002). Methodological nationalism and the study of 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43(2), 217-240.
- Yin, R. K.(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ition. Sage.
- Yin, R. K.(2021). <사례연구방법>. (6판, 신경식, 송민채, 신현섭, 조수현 공역). 한경사. (원전 2018 출판)

필자 소개

성 명 최정아
소 속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주 소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전자우편 cja523@bist.ac.kr

성 명 이승연
소 속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자우편 dearsy@ewha.ac.kr

Abstract

The Practice of Transnationalism Embedded in the Life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Choi, Jung Ah · Lee, Seung Yeon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actice of transnationalism embedded in the life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three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 case study was used to explore cas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group interviews. As a result, in the lives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all the practices of transnationalism in the socio-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were revealed. The socio-cultural practice was found to be in contact with the Filipino family by phone and frequent access to the Filipino media. In the economic practice, it was found that a small amount of money needed for family members or acquaintances or hospital expenses were remitted. In the political practice, it was found that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interested in the Philippine elections and participated in community network. 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in not only supporting the practice of transnationalism in the lives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but also helping to balance the bilateral transnationalism between the Philippines and Korea.

[Key words]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Transnationalism, Transnational practice, Case study research

투고일 2023. 06. 15 / 심사일 2023. 07. 13 / 게재확정일 2023. 07. 18

www.kci.go.kr